

일본의 잠재성장률

* 이 자료는 일본경제신문 「시사해석: 일본의 잠재성장률(14.12.29-12.31)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일본 경제는 노동, 자본, 생산성 등 3가지 요소 모두 침체되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자체도 저하
-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수를 늘림과 동시에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, 성장전략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익률을 향상시켜 수요, 공급 모두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

□ 잠재성장률의 결정요인

-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을 의미
 - 경제성장률은 GDP의 증가율이며, GDP는 국내 경제활동으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 합계임
 - 잠재성장률은 노동의 양, 기업의 설비 등 자본의 양, 그리고 이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생산성 등 3가지 요소로 결정됨
 - 노동, 자본, 생산성 등 3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나 증가하는 실력이 있는가를 추계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산출
- 일본 내각부는 2014년 3분기의 잠재성장률을 연율 0.6%로 추계하고 있는데, 실제 성장률은 연율 $\triangle 1.9\%$

□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 저하

- 실제 수요와 일본 경제의 잠재적 공급력(잠재 GDP)의 차를 나타내는 수급 갭(GDP갭)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
 - 일본 내각부에서 공표한 2014년 3분기 GDP(1차 속보치)의 수급 갭은 마이너스 2.7%(2분기는 $\triangle 2.2\%$)로 6년 이상 마이너스를 계속

- 이케노 카즈히토(池尾和人) 게이오대학 교수는 저서인 「연속강의 : 디플레이션과 경제정책」 중에서,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GDP갭을 동반하면서 잠재성장을 그 자체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
 - 일본 경제는 본래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었던 동시에 실력 그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고 해석
-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1980년대 잠재성장률은 평균 4.4%이었으나, 1990년대에는 1.6%, 2000년대에는 0.8%로 저하
- 잠재성장률은 추계방법에 따라 다름
 - 2014년 잠재성장률에 대해 일본 내각부는 연율 0.5%로 추계하고 있는 반면, OECD의 추계치는 0.8%임
 - 미국은 2.2%, OECD가맹국 평균치는 1.9%로 선진국 중 일본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

□ 일본은 노동공급, 자본투입, 생산성 모두 저위

- 저출산·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노동이 가장 문제가 되나, 자본과 생산성도 문제를 안고 있음
- 일본 내각부는 「경제사회구조에 관한 유식자 회의」를 설치하고 2012년 2월 잠재성장을 전문팀을 발족
 - 제1회 회의에서 좌장인 미야가와 쓰토무(宮川努) 가큐슈인(学習院)대학 교수는 1995년 이후 일본의 자본투입기여율 저하가 현저해지고 있다고 지적
 - 독일과 프랑스는 대체로 1% 정도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는 0.5%
- 경제 전체의 생산성(총요소생산성:TFP)은 OECD추계로 2011년 일본은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
 - 특히 비제조업의 생산성 저하를 지적하는 지식인들이 많음

- 결국,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모두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,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수를 늘림과 동시에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
- 혁신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, 서비스가 개발되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 자본 투입증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
- 과거 20여년 일본 경제는 본래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동시에 실력 그 자체가 저하되고 있음

□ 성장전략을 통한 투자수익률 향상으로 수급 확대해야

-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①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마이너스의 수급 갭을 해소하고, ②성장전략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음
- 이케오 교수는 ①과 ②는 별도의 과제가 아니고 통합된 과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
- 마이너스 수급 갭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인 수요부족이라기보다, 잠재적인 수요구조에 공급구조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임
- * 즉, 기업과 가계의 성장기대 저하(잠재성장을 저하)가 수요를 억제
- 후카오 히토츠바시대학 교수도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전략을 성공시켜 국내 투자수익률 향상을 통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
- 성장전략의 메뉴가운데, 고용유동화와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,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도 늘이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임

□ 타겟팅 정책(Targeting Policy)의 효과는 의문시

- 그러나 의료, 간병 등 성장분야를 국가가 특정하여 육성하려는 새로운 타겟팅 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이 강함
- 타겟팅 정책은 기업이나 시장보다도 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